

3월 25일, 그리고 26일. 이틀만 딱 걸려 있어도 MLB는 마음이 먼저 달려버리죠. “이번 주는 뭘 봐야 하지?”라는 질문이 생기는 순간, 진짜 필요한 건 경기 자체보다도 일정 읽는 감각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MLB중계를 보려면 시작 시간, 시간대, 우천 취소나 순연 같은 변수가 생각보다 자주 튀어요. 그래서 저는 첫 주는 “보는 순서”까지 미리 짜두는 쪽이 편하더라고요.



아래는 2026 MLB 개막 첫 주, 3/25부터 3/26까지 기준으로 한국 시청자가 야구중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잡는 로드맵입니다. 중간중간 KBO 일정도 같이 엮어줄게요. 개막 전후로 같이 굴리는 사람이 많아서요. (검색하다 보면 야구 중계사이트를 여러 개 돌리게 되는데, 그때도 어떤 기준으로 걸러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둘게요.)

3/25, 3/26이 왜 첫 주의 기준점이 되나

MLB 2026시즌은 3월 25일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뉴욕 양키스의 Opening Night로 시작하고, 3월 26일은 전통적인 Opening Day가 열립니다. 딱 이틀이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아간다”는 체감 구간이라, 팬들 입장에서는 집중도가 확 올라가요. 팀들이 시즌 초반이라 아직 리듬 찾는 중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개막전 분위기 자체가 워낙 커서 보게 되는 경기로 뭉치기도 하죠.

여기서 한국 시청자가 겪는 문제는 단순합니다. 경기 시작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한국) 기준”으로 언제인지 바로 안 박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은 동부, 중부, 산악, 태평양 등 여러 시간대를 쓰고, 서머타임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KST(UTC+9) 고정이라서, 결국 “내 화면에 뜨는 시작 시간”은 꼭 확인해야 정확해져요. 이게 MLB중계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습관처럼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주 로드맵을 만들 때, ‘경기를 고르는 시간’보다 ‘시간을 검증하는 시간’을 더 먼저 잡습니다. 시작 시간을 대충 보고 놓치면, 그날 일정은 그냥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첫 주를 보는 방식: 개막전 감상 + 일정 관리

개막 첫 주는 두 가지 결이 있어요.

첫째, 3/25의 Opening Night처럼 “시즌 시작 그 자체”를 한 번 크게 받아주는 날. 둘째, 3/26 Opening Day를 이어서 흐름을 이어가는 날. 이때는 여러 경기를 억지로 다 챙기려 하기보다는, 집중할 한 타임을 정하고 나머지는 하이라이트나 기록 위주로 가져가는 게 효율이 좋아요.

예를 들면,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3/25는 Opening Night인 자이언츠-양키스 경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같은 날 진행된 다른 경기들”을 욕심내기보다, 다음날부터의 시청 가능 시간대로 슬롯을 맞춰둬요. MLB

는 시즌 일정이 길고, 공식 일정에서도 팀별, 전체 시즌 일정이 계속 업데이트되니까 “첫 주에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흔들리더라고요.

정리하면, 첫 주 목표는 이겁니다. 개막 분위기를 놓치지 않되, 시간대 변수를 최소화해서 ‘보고 싶은 경기’가 실제로 화면에 걸리게 만드는 것.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 첫 주에 특히 봐야 하는 것들

야구중계사이트 얘기 나오면 보통 화질, 채팅, 광고 같은 걸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개막 첫 주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사이트가 일정의 진실을 같이 들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 KBO는 국내 일정이란 중계 정보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편한 편이고, MLB는 외부 시간대 문제 때문에 더더욱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 기준을 간단히 말하면, 공식 일정이나 공식 페이지에서 시작 시간과 취소 여부 같은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위나 최근 경기 기록 같은 뒷정리를 얼마나 빠르게 제공하느냐예요.

실제로 KBO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구장, 경기 시간, TV/라디오 중계, 취소 여부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건 야구중계 정보를 확인할 때 엄청 유용하죠. MLB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시즌 전체와 팀별 일정이 공개되고, 공식 순위 페이지에서는 승/패, 승률, 게임차, 최근 10경기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일정-시작시간-중계 확인”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첫 주에 실제로 사이트를 열고 바로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 해당 경기의 시작 시간(한국 시간 기준 표시가 있는지)
- 취소 여부, 순연 가능 여부 표기
- 어떤 중계 채널로 연결되는지(가능하면 TV/라디오처럼 형태가 명확한지)
- 팀별 일정까지 바로 눌러서 확인 가능한지
- 개막 이후 순위나 최근 기록이 업데이트되는지

이 다섯 개를 먼저 보면, “그냥 링크가 떠있어서 볼 수 있는 곳”이랑 “일정을 기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곳”이 갈립니다. 첫 주에는 특히 이 차이가 큼니다.

3/25 로드맵: Opening Night는 ‘출발 시간’부터 잡자

3/25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뉴욕 양키스가 Opening Night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은 “전반 분위기가 지 제대로 잡기”를 목표로 잡아요.

문제는 시차입니다. MLB중계를 한국에서 볼 때는, 같은 날짜라도 미국의 시간대가 다를 수 있고, 시즌 초에도 서머타임 적용 여부에 따라 체감 시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3/25 당일에는, 경기 직전에만 확인하지 말고 하루 전이나 최소한 당일 아침에 한 번은 시간을 다시 짚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공식 일정에서 경기 시간과 운영 여부가 확인되는 구조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또 한 가지. 개막전은 경기 시작 전 콘텐츠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시작 시간만 보고 TV 앞에 갔는데, 실제로는 준비 방송 때문에 늦게 들어오게 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막전 당일은 리모컨 앞에 앉는 시간을 시작 시간보다 조금 앞당겨 잡습니다. 방송국/스트리밍 플랫폼마다 틀릴 수는 있어도, 최소한 ‘내가 늦어질 구간’을 없애는 쪽이 편해요.

이 날은 다른 경기 여러 개를 동시에 붙잡기보다, 자이언츠-양키스 경기로 감각을 세팅해두는 게 좋아요. 시즌 초반 기록은 아직 쌓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개막전 특유의 긴장감은 그날만 있거든요.

3/26 로드맵: Opening Day는 “전후 비교”가 재미

3/26은 전통적인 Opening Day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막전 감상으로 분위기를 잡은 뒤에 Opening Day로 한 번 더 이어지는 흐름이 생기는 날이에요.

이 날은 저는 보통 이렇게 운영합니다. 전날에 봤던 팀이나, 이번 주에 관심이 가는 팀들 기준으로 “첫 주의 흐름”을 확인해요. MLB는 공식 일정에서 시즌 전체와 팀별 일정을 볼 수 있고, 공식 순위 페이지에서 승/패, 승률, 게임차, 최근 10경기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주는 아직 승수도 적어서 수치가 모든 걸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팀의 초반 리듬을 감 잡는 데는 충분해요.

그리고 이때 체감되는 게 있어요. 첫 주는 “경기 결과를 본 다음”에 순위나 최근 기록을 같이 보는 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끝나고 나면, 그날 승패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최근 10경기 흐름까지 같이 확인해요. 물론 개막 직후라 최근 10경기가 길게 의미를 갖는 단계는 아닐 수 있어도, 최소한 다음 경기에서 어떤 팀 컨디션을 기대해야 하는지 감을 줍니다.

이 날의 핵심은 하나예요. 3/25에서 시작한 리듬을 끊지 않고, 3/26에서 “다음 볼거리”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한국에서 시간대가 꼬일 때, 판단 기준 2가지

MLB중계를 처음 보는 사람은 시차 문제를 한 번 크게 겪고 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근데 첫 주에는 그 실수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막 주는 일정표를 여기저기서 확인하게 되니까요.

제가 시간대 꼬일 때 바로 점검하는 기준 두 가지를 말해볼게요.

첫째, “한국 시간으로 변환된 시작 시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예요. 사이트마다 표기가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하면 공식 일정에 표시된 시작 시간을 우선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정적입니다. 둘째, “취소나 순연 안내가 언제 업데이트되는지”예요. 경기 당일 분위기만 보고 갔다가, 취소로 바뀌면 그날 계획이 흔들리죠. 그래서 취소 여부 확인이 같이 되는 구조가 있으면 확실히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기서 KBO 일정과도 연결되는데요. KBO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 취소 여부와 TV/라디오 중계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 방식이 이미 익숙한 사람은, MLB도 “일정-시작시간-변수”를 한 화면에서 최대한 같이 보고 싶어지거든요. 첫 주 로드맵을 짤 때 그 감각 그대로 가져오면 시행착오가 줄어요.

KBO 일정까지 같이 굴릴 때의 현실적인 운영법

MLB 개막 첫 주에 KBO까지 같이 보는 사람 많아요. 특히 3월 하순부터는 KBO 정규시즌 개막이 다가오거든요. 2026 KBO 정규시즌은 3월 28일(토) 개막이고,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 편성입니다. 올스타전은 7월 11일(토)이에요.

즉 3/25, 3/26은 MLB 개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구간이고, KBO는 정규시즌 직전 페이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KBO는 시범경기가 3월 12일에 개막하니, 정규시즌 앞두고 분위기 확인용으로는 이미 시선이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mlb중계](#) 크죠.

그래서 저는 첫 주(3/25~3/26)는 이렇게 운영하는 편입니다. MLB는 개막전 중심으로 잡고, KBO는 “정규시즌 개막 확정 전이라도, 시청 가능한 경기만 가볍게 확인” 정도로 두는 거예요. 정규시즌 개막이 3/28(토)로 잡혀 있으니, 그 직전부터는 KBO 이동, 루틴, 시청 시간까지 같이 정리해야 하거든요. 첫 주에 너무 욕심 내면 3/28에서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KBO는 운영 시간이 일정 구간마다 바뀌는 공지가 있었죠. 평일, 주말·공휴일, 그리고 9월 1일 이후 같은 식으로 운영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MLB 시청 시간표와 충돌하지 않게 “주간 단위로” 다시 짜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첫 주에는 MLB가 중심이지만, KBO까지 같이 보겠다는 사람일수록 일정 재정렬을 빨리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첫 주에 자꾸 생기는 함정들, 그리고 피하는 방법

개막 첫 주는 기대가 커서, 계획이 단순해질수록 오히려 위험해요. 몇 번이고 실수 포인트가 생깁니다.

가장 흔한 건 “시작 시간만 믿고 같은 기기에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 취소나 순연이 발생하면, 그 순간에 다른 채널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첫 주에는 최소한 “공식 일정에서 해당 경기가 취소인지, 순연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하나는 고정해 둡니다.

두 번째는 “팀명은 알지만 상대팀, 지역 시간대가 섞이는” 경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자이언츠’나 ‘양키스’ 같은 큰 팀명은 먼저 떠오르는데, 같은 날짜에 다른 팀 경기들도 줄줄이 이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날짜는 맞는데 매치업이 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기록으로 확인하면 바로 잡히지만, 경기 직전에 찾아보면 멘탈이 흔들려요. 그래서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매치업을 확정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개막전은 무조건 다 생중계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개막 첫 주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을 목표로 잡으면, 다음날 다른 경기 보다가 흐름이 끊기거든요. 저는 이럴 때 “전반은 보되, 후반은 기록 확인으로 대체” 같은 식으로 타협하는 편이에요. 중계 품질이나 방송 구성에 따라 다르니까, 내 컨디션을 기준으로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야구중계는 보고 나서 더 오래 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3/25~3/26 첫 주를 마무리하며, 그 다음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법

3/25 Opening Night, 3/26 Opening Day. 이 이틀을 잘 넘기면 그 다음 주는 훨씬 편해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주에 일정 읽는 루틴이 잡히면, 이후에는 “공식 일정과 공식 순위가 업데이트되는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MLB 공식 일정은 시즌 전체와 팀별 일정을 제공하고, 순위 페이지에서는 승/패, 승률, 게임차, 최근 10경기 같은 정보가 정리됩니다. 이 구조를 한 번 몸에 익히면, 야구중계사이트가 여러 개일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쪽이 맞는지”를 싸우지 않고, 공식 일정과 순위의 타이밍을 기준으로 따라가니까요.

KBO도 3/28 정규시즌 개막이 기다리고 있으니, 첫 주에 만든 루틴을 그대로 KBO 정규 시즌 준비로 옮기면 훨씬 덜 번거롭습니다. KBO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구장, 경기 시간, TV/라디오 중계, 취소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운영 시간 공지도 구간별로 안내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리그를 동시에 봐도 “일정 확인 방식”이 비슷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막 첫 주용으로 추천하는 시청 시나리오

너무 거창한 계획 말고, 현실적으로 굴러가는 시나리오가 필요하죠. 저는 첫 주를 보면서 결국 이렇게 정착했습니다.

3/25에는 Opening Night인 자이언츠-양키스 경기를 시작으로 잡고, 시작 시간과 취소 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3/26은 Opening Day에 이어서 관심 팀 위주로 팀별 일정에서 다음 타임을 체크하고, 경기 끝나면 순위나 최근 기록을 함께 훑어서 “다음에 뭘 볼지”를 자연스럽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KBO 정규시즌 개막인 3/28이 코앞이니, 3/25~3/26 사이에는 MLB 중심으로 루틴을 세팅하면서 KBO는 가능한 선에서 가볍게 확인하는 쪽이 가장 덜 지치더라고요.

만약 지금 야구중계사이트를 여기저기 찾고 있다면, 당장 필요한 건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공식 일정 기반으로 시간이 안 어긋나는 곳”입니다. 첫 주만 제대로 맞추면, 이후엔 mlb중계도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익숙해지면, 결국 야구중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다림이 됩니다. 개막 주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